

각자도생의 해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경제연구소와 기업에서 2025년 경제·산업전망 분석이 한창이다. 내년 경제 기상은 '흐림'을 예상하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는 한마디로 암울하다.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가계 등 경제주체 모두 긴장하고 있다. 먼저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내수(소비+투자) 위축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 소상공인, 개인 모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내년 우리 사회는 '저성장 지속과 양극화 심화' 속에서 각자도생이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한 2.0%로 제시했다. 수출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 수준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025 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저성장 지속을 예상했다. 그 이유로 저출생, 고령화, 높은 수출 의존도 등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또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내수

부진도 이유로 들었다.

하나금융은 2025년 우리 경제의 키워드로 '우로보로스(Uroboros)의 딜레마'를 꺼냈다. 우로보로스는 고대 신화에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을 말한다. 자기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도 모른채, 끝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현실과 대자부된다. 정쟁이 끊이지 않는 정치는 내년에도 희망이 크지 않다. 경제도 희망적이지 않다. 저성장에 따른 양극화가 한국의 경제를 짓누를 것이 분명하다. 정치 양극화에 이어 소득 등 경제력 격차가 벌어져 빈부격차가 심해질 전망이다.

양극화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은 수익성 약화와 기술력 미비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소상공인도 되는 집만 되는 구도가 예상된다. 다른 가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 문을 닫아야 한다. 웃는 곳과 우는 곳이 생긴다. 소비 양극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저가 위주의 필수 소비가 대세를 이루면서 고가 제품은 선택적 소비만 이뤄진다.

내년 경제 기상이상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혼돈'과 '공포'로 표현한다. 태풍과 폭설이 잦다는 얘기도. 실제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수출을 토대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를 매긴다고 공약했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자동차 업체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촘촘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다. 미국의 정권교체 트리거(방아쇠)도 몰가, 일자리 등 경제였다. 살림살이가 승부를 가른 셈이다. 우리나라 정치도 반연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권도 잃는다. 정치는 차치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 사각지대 복지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두려운 내년이 재깍재깍 다가오고 있다. 구름이 몰고 올 비와 태풍을 대비해야 한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삼성전자 주가 오른 '후'가 더 문제다



김지수
허정윤 (자본시장부)

지난주만 해도 삼성전자의 주가전망을 놓고 "5만전자 이하로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측과 "시총 1위 기업 주가가 그까지 내릴 수는 없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리고 지난 14일, 삼성전자 주가는 4만9900원이라는 신저가를 기록, 팬데믹이었던 2020년 6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4만 전자'가 되고 말았다.

위기를 인지한 것일까.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차사주 매입·소각' 카드를 꺼냈다. 무려 10조원 규모이다. 발표 후 2거래일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13.19% 올랐다. '4만 전자'에 '쭈뼌'한 투자자들은 환호했고 평단을 낮추기 위해 이른바 '물타기'한 투자자들은 안도했다.

문제는 주가가 오른 뒤다. 삼성전자가 '국민주'라고 불리는 만큼 이들이 마주할 미래는 혹독할 수도 있다. 온라인 종목토론펙에 가도, 카페에 가도 "8만 전자 되면 미련 없이 팔 것", "평단만 넘겨봐라 다시는 국장 안 한다", "소각은 3조원만 한다며?"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넘친다.

이번 '4만 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탓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HBM 기술 개발과 점유 부문에서 저지른 실기(失機)에서 비롯됐다는 걸 대다수가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로부터 촉발된 리더십 부재는 삼성전자의 발

목을 붙잡고 있다.

결국 차사주 매입으로 '반짝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끌어올린 주가는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는 삼성전자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시총 1위' 조차도 힘이 빠져버린 국내 증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를 판 투자자들이 국내 다른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떠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증시를 위해서라도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차사주 카드' 외에도 삼성전자가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가절감 대신 '대규모 투자 카드'를 꺼내주길 기대해본다.

/zelkova@

오늘의 운세 11월 22일 (음 10월 22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는 날. 48년생 부지런히 앞선 사람을 본받을 것은 인정해야 한다. 60년생 재할용으로 집수리를 계획. 72년생 내키지 않은 술자리가 곤욕스러우면 남 피해 주지 말고 참석 치마라. 84년생 운동은 천천히.
- 소** 37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49년생 하나를 뿌려도 열 개로 돌아오는 날이다. 61년생 계약이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성사되지 못한다. 73년생 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일까. 85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 호랑이** 38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50년생 결과가 보이기 적극적으로 행동. 62년생 집안 자랑 하지 말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74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는 떠있는 구름 된다. 86년생 동료에게 한 격려가 큰 성과로 돌아온다.
- 토끼** 39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울 날. 51년생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성. 63년생 주변이 시끄러워 절로 입을 다문다. 75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87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고 했는데.
- 양** 40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52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 있고 비는 오지 않지만 힘을내라. 64년생 시비를 가리다 내 허물도 나온다. 76년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88년생 연인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 뱀** 41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53년생 넓게 보면 여유가 생기고 방법도 생긴다. 65년생 사촌이 땅을 사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 77년생 모처럼 비가 오니 경제 여건이 호전된다. 89년생 결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 말** 42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54년생 바쁘게 길을 떠나야 하는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66년생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78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될 해야 하나 고민. 90년생 산소문제는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 양** 43년생 준비 없는 동봉서주는 이익이 없다. 55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67년생 유혹이 많으니 마음을 굳건히. 79년생 사랑도 우정도 무엇보다 약속이 수반되어야. 91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 원숭이**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56년생 종로에서 땀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해본들. 68년생 웃지 않고 보낸 날은 의미가 없다. 80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현명함이다. 92년생 결혼이 바보 같은 선택임을 깨닫는다.
- 닭** 45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57년생 친척과 대화 중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다. 69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81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93년생 소개한다고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 개** 46년생 생 금전 문제 아니면 속살할 일이 있다. 58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70년생 그림과 서예를 시작해본다. 82년생 하다 보면 시간이 갈수록 학문이나 덕행이 크게 진전된다. 94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 돼지** 47년생 가장 좋은 협력자가 있다. 59년생 분수를 알고 기다리면 보답이 따른다. 71년생 경관이 화려하고 실속도 모자라다. 83년생 어느 단체나 규칙이 있는 것으로 통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9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날개를 얻는 격이다.



김상회의 **사계**
소통

존재하는 동식물, 사물들은 상호관계를 이루며 발생하는 파장에 따라 이기氣로 나타난다. 이로써 바람 같은 신살神殺의 작용도 함께 일어나는데 상담자와 잠시 책상에 마주 앉아서 그 많은 부분을 간파하기는 몹시도 난해하다. 언젠가 TV 드라마에서, 사주를 보러와서 이렇게 말하는 연기자의 장면을 보았다. "그건 그쪽이 알아맞혀야지." 어떤 일로 오셨느냐는 말에 대한 대답이었다. 자기가 어떤 문제로 왔는지 말해야 용한 거 아니냐는 의미다. 뭔가 답을 찾고자 왔다면 부정적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팔자의 공식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전체적인 운세가 어떻게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금 지식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든지 직장 문제로 일이 꼬였다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를 소통하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체가 누구이며 객체의 상호 간에 현재는 어떤 상황으로 구분되어있는지, 천간天干 지지地支에서 일주日柱인 나와 상대적 관계를 알고 길흉을 파악한다면 미래의 작용력이 밝게 나오는 것이다. 현재 상황이 구체적이라면 운세의 흐름 개운의 시기를 세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렇듯 그건 당신이 알아서 맞춰보라면서 입을 다무는 부정적 사고에 사람은 애당초 방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람 일이라는 게 앞을 내다볼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좋은 일이 생긴다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온다면 대비를 하면 된다. 게다가 좋은 일에 한 가지 힘든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면 한탄을 한다. 좋은 일이 훨씬 많은 데도 한 가지 나쁜 일에 매달린다. 그건 사주나 운세가 나쁜 게 아니라 부정적 사고에 발목 잡히는 것이다. 소통으로 마음을 바꿔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해결점에 다다른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6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1	9	3	6				
	6			4				
	2			8				3
	4							9
		7		1		6		
	8							5
2			6					4
				2				8
			8	7	5	2		1

	1	6		5		9		2
		4	2					6
5				9				
		8			2			
4								1
			6			5		
				2				9
8					3	7		
6	7	1		4	8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1	8	2	9	4	8	7	6	9
9	8	6	1	2	7	5	4	8
5	7	4	8	6	9	8	1	2
7	9	8	6	9	4	2	8	1
8	2	9	7	1	5	4	8	6
4	6	1	2	8	8	9	7	5
8	9	7	8	1	6	2	4	1
6	1	5	4	7	2	8	9	8
2	4	8	9	8	6	1	5	7

8	8	7	6	1	9	4	2	9
9	2	4	8	9	7	1	6	8
6	1	9	8	2	4	5	7	8
8	6	9	1	7	9	8	4	2
1	2	4	9	8	6	9	7	5
7	9	8	2	4	6	8	9	1
4	7	8	9	6	1	2	8	9
9	9	1	4	8	2	7	8	6
2	8	6	7	5	8	9	1	4